

National Bibliographic Control in Japan

日本の 全國書誌統制

丸山 昭二郎 著

金 光 永 譯

서울大學校 圖書館

編輯者註：本稿는 日本國立國會圖書館에 근무하는 丸山昭二郎 氏が 1976. 5. 31~6. 5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에서 발표한 論文으로 우리나라의 國家書誌發展에 있어서 좋은 參考資料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번역하여 소개한다.

「日本國見在書目錄」은 일본에 있어서 最古의 綜合目錄이고, 總目錄, 혹은 全國書誌와 같이 서지적 도구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 서기 890년경(宇多天皇당시) 일본에 현존한 漢籍 1,600部 16,000卷을 收錄하고 있다.

17世紀以後에는 木板印刷로써 圖書를 刊行하는 방식이 보편화 되었다. 18世紀以後에는 出版取締制度가 시행되어 허가가 없이는 도서가 출판될 수가 없었다. 그 결과 그 당시의 간행물은 比較的 完備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일본의 봉건사회의 末期, 근대 산업사회의 黎明期에 해당하는 1868년의 明治以後의 全國書誌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I. 過去에 있어서의 全國書誌事業

a) 「國書總目錄」은 8卷인데, 岩波書店이 1963년부터 1972년까지 발행하였다. 이 목록은 일본의 古代 시대로부터 19세기 중기까지 출판된 도서의 全國書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426개의 도서관 장서를 기초로 하여 1867년까지의 일본인에 의한 著作, 編纂, 번역된 古書, 古寫本등 約 50萬種을 收錄하고 있다. 이 目錄은 書名記入으로 書名順으로 排列되어 있는데 1976년 著者索引을 刊行할 예정이다.

b) 「國立國會圖書館所藏明治期刊行圖書目錄」은 明治年間에 刊行된 國立國會圖書館에 所藏된 圖書 約 12萬種을 收錄하고 있다. 이 目錄은 NDC의 大區分에 의하여 分類·目錄되었으며 1971년부터 1976년까지 刊行되었고, 5卷과 別冊의 書名索引으로 되어있다. 明治期에 刊行된 全出版物의 約 7割을 수록하고 있다고 推定된다.

현재 國立國會圖書館은 大正期(1912~1925)와 昭和

期(1926年以後)의 週及 目錄을 刊行할 계획이다.

II. 近代 全國書誌

a) 國立國會圖書館의 設立 以前

明治以後 出版物檢閱法에 의하여 出版者는 檢閱을 위하여 內務省에 納本하여야할 義務가 있었다. 1876년에 「版權書目」 1878년부터 1887년까지에는 「出版書目月報」가 刊行되었다. 그 後 1891년까지는 民間 出版社가 公的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月報를 刊行하였다. 다음에는 東京出版協會가 不定期的으로 「Books In Print」을 내게 되었다.

어느 個人은 1926년부터 1937년까지의 內務省에서 얻은 情報를 기초로 하여 月報를 刊行하였다. 이 月報는 많은 번천을 거쳤으나, 個人의 노력에 의하여 10여年間이나 계속되었다.

1927年以後 「出版年鑑」은 비록 때로는 出版者가 바뀌었으나, 성공적으로 刊行되었다. 이러한 年鑑은 모든 새로운 무역 출판물과 출판사의 주소, 출판통계 등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官廳出版物은 1927년부터 1943년까지 內閣印刷局에서 季刊으로 目錄을 만들어 刊行하였다.

國立國會圖書館이 設立되기 以前의 유일한 國立圖書館인 帝國圖書館은 1908年以來 「帝國圖書館報」로 月刊으로 刊行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새로 수입된 圖書의 分類目錄이다. 帝國圖書館은 內務省에서 納本된 圖書를 收入하고, 保存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月報는 官廳出版物을 망라한 당시의 근대적인 全國書誌였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41년에 폐간되었다. 1948年 國立國會圖書館의 設立이 있기까지 제2세계대전 때문에 全國書誌의 刊行이 지연되었음으로 인하여 1941~1948년 사이의 공간을 메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b) 國立國會圖書館의 設立과 全國書誌센타로서의 기능

제2차 세계대전후 國立國會圖書館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1948年)에 同 圖書館이 設立되었다. 戰後 出版物의 檢閲制度는 廢止되었다. 國立國會圖書館의 納本規定에 의하여 出版者는 最底 一部를 納本할 義務가 있으며, 그리고 同法에 納本된 圖書의 目錄을 一年 以內의 期間中에 刊行할 것을 國立國會圖書館에 對하여 義務시켰다.

國立國會圖書館은 1948년부터 月刊으로 刊行하기 시작하였고, 1955년부터는 「納本週報」로 바꾸었다. 이 納本週報는 두개의 部分으로 나누어 졌으니, 그 하나는 官廳刊行物이요, 다른 하나는 그 以外의 出版物이다. 官廳刊行物은 官廳名順으로, 그 以外의 出版物은 NDC 分類順으로 排列되어 있고, 모든 기입은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저자명기입이 아니라, 서명기입이다. 週報는 평균 700개의 기입을 수록하고, 새로운 逐次刊行物은 때때로 부록에 실려진다.

「全日本出版物總目錄」은 納本週報, 補遺版을 기초로 하여 1948년에 초판을, 1951年 以來에 年刊으로 편집, 刊行되었다. 이 全國書誌는 現在까지 정기적으로 발간되었으나, 편집방침은 약간의 변경이 있어서 그 결과 때로는 官廳刊行物은 別冊으로 나왔으며, 視聽覺資料와 發行所의 名簿 등을 제외하였다. 모든 年刊은 約3萬種의 單行本과 1萬種의 逐次刊行物을 수록하고 있다.

1975년에 刊行된 「全日本出版物總目錄補遺版」은 1948년부터 1969년까지의 未收錄分納本圖書를 수록하였다.

全日本出版物總目錄의 도서선정은 두개의 部分으로 나누어 졌으니, 그 하나는 官廳刊行物이요, 다른 하나는 「納本週報」와 마찬가지로 官廳刊行物 以外의 圖書이다. 그러나 官廳刊行物 以外의 圖書는 書名記入 대신에 著者名記入으로 되어있으며, 그것에 대한 記入은 NDC의 分類에 의하여 排列되어있으며, 書名索引이 있다.

Ⅲ. 발전 전망과 기술적인 난해성

國立國會圖書館은 1971년에 電算機를 導入하였는데, 漢字의 데이터 處理를 중점적으로 圖書館業務의 機械化에 실시하여 各種 索引과 目錄은 冊字로 출판하였다. 여기에서 얻은 경험을 통하여 全國書誌의 電算機에 의한 편집은 1977년에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電算機에 의한 방식은 앞으로 이러한 書誌에 관하여 많은 改善이 期待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채 남아있는 몇가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a) 目錄情報의 제공

현재 全國書誌는 엄격한 의미에서 일본의 全 新刊圖書에 관한 安全한 目錄情報를 傳達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기입지시(Tracing)에 주제명표목과 분류번호의 같은 주제에 관한 지시나, 부출(Added entries)도 없다. 이는 U.B.C에 의하여 요구된 書誌에 관한 큰 缺點이다. 이러한 缺點은 「印刷카드連報」라고 하는 다른 週刊物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보완되고 있는데, 이 連報는 國立國會圖書館의 印刷目錄카드에서 週刊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日本の MARC Tape은 이러한 편집에 있어서의 핵심이 될 것이며, 신속성있게 편집할 수 있다. 현재의 出版情報에 부가하여 새로운 全國書誌는 冊字로서 利用者에게 完全한 目錄情報와 다양한 情報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日本書誌에 관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書名主記入은 전통적으로 日本의 目錄에 있어서 채택되어 왔는데, 이러한 방식은 동양적 전통, 특히 「著書」의 성격과 「著者」의 역할에 관한 공통된 이해에 기인하는 점에서 유래된다. 서양세계에서는 著者없이 어떠한 著書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東洋에 있어서는 著者를 찾기 힘든 많은 著書들이 별개로 존재한다.

日本標準目錄規則인 NCR은 파리원칙(목록기입에 관한 기술)에 의하여 基本記入(著者)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NCR의 증보판은 ISBD(M)와 一致하도록 改訂作業을 하고 있다. 新 NCR에서는 「기술단위카드제」, 혹은 「표목이 없는 단위카드제」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1) ISBD(M)에 기초된 書誌記述은 標目, 分類記號, 件名標目등의 주제지시없이도 圖書를 識別할 수가 있으므로 基本記錄인 기술단위카드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ISBD(M)의 基本記錄은 MARC Tape의 사용에 의하여 目錄情報의 國際交流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매우 有用할 것이다.

2) 和漢書의 目錄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和漢書의 書誌的 記錄은 漢字와, 그의 表記文字(로마자, 혹은 カナ)로써 배열의 매체로서 하고 있다.

이러한 複雜한 目錄問題는 「기술단위카드제」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부기입으로써 로마자만을 사용하는 표목에서 부터 漢字를 포함한 기술목록부분을 분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MARC Tape에 의하여 편집된 新 全國書誌는 비록 일본어로 인쇄되기는 하지만 ISBD(M)의 기록에 기초한, 특히 和漢目錄에 있어서 국제적인 書誌 도구가 될 것이다.

b) 納本制

1948년부터 1969년까지의 「全日本出版物總目錄」補

遺版의 未收錄分은 約 6,400種 8,800冊에 달하고 있다. 檢閱制度에 의하여 國立圖書館에서 出版物이 收集을 망라하여 실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의 유용한 해결방법으로 全國綜合目録에 실리는 방식이나, 地方出版物의 수집에 역점을 두는 방식이 연구되었다. 특히 일본의 首都에 위치한 國立圖書館이 地方出版物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곤란한 문제이다.

美議會圖書館의 MARC계획에 있어서 그 MARC의 資料源(data base)의 內容을 豊富하게 하는 이른바, COMARC는 이제 연구해 볼 단계에 왔다. 앞으로 全國的인 on line union과 shared cataloging network가 조직된다면, 전국적인 규모의 참가하는 도서관의 CRT terminal을 통하여 입력되는 目録情報資料는 日本의 MARC의 資料源(database)의 內容을 豊富하게 할 것이다.

日本圖書館間의 相互協力없는 國立圖書館이 최신의 國內刊行物에 관한 完全한 書誌情報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出版社측의 協力は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하겠다.

IV. UBC의 적용에 선행한 기술적 난해성

a) 로마자화

極東諸國에서 사용하고 있는 漢字는 書誌情報의 世界的인 交換에 있어서 特別한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各言語의 로마자화는 國際標準化機構(ISO)의 방식에 의하여 各國에서 채용하고 있다. 근래에 全國的인 MARC Tape의 교환에 관한 상호협정을 어떤 나라 사이에 체결되었다. 日本에서는 國立國會圖書館이 ISDS(國際逐次刊行物 Data base)와 全國的인 MARC의 교환 계획등과 같이 국제적인 교환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

서양의 컴퓨터에 있어서는 단지 Alphanumeric문자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漢字를 포함하고 있는 일본 MARC Tape을 서양의 諸國에 보낸다면, 그들의 컴퓨터는 漢字의 데이터를 전혀 처리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Seminar의 논문에서 國立國會圖書館의 Oda氏가 지적한 바와 같이 컴퓨터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漢字로 식별할 수 있는 日本語로 쓰여진 書名과 著者名은 로마자로 쓰여진 것과는 서로 식별될 수가 없다. 일본의 MARC記錄과 기타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일본의 書誌의 기록이 서양의 諸國에 보내지기 전에 日本의 書誌의 記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한다. 즉 국제적

인 記錄으로서 漢字를 포함한 記錄과 로마자로 된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b) 漢字 자료처리

國立國會圖書館에서 印刷카드를 印刷하는데 必要한 漢字의 字種은 一萬字以上이 된다. 이와같이 막대한 數의 漢字의 入出力은 큰 負擔이 아닐 수 없다. 日本書誌자료 처리조직은 그 범위를 科學技術部門의 情報處理에 국한하고 있으며, 2,000字의 漢字를 사용한다. 그러나 全國的인 書誌情報의 기계화에 의한 편집에 있어서는 많은 도서관인과 서지학자들은 記述目録의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필요한 漢字 그대로 出力하기를 희망한다.

앞으로 漢字의 書誌的 資料는 CRT terminal을 사용함으로써 전국적인 online 자료처리시스템(data processing system)을 다루게 될 것이다. 漢字 資料(2 byte 사용)와 alphanumeric資料를 동시에 포함하는 MARC format와 online file를 설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V. 미래에의 도전

日本書籍出版協會는これから出る本(앞으로 나올 도서)을 Semimonthly로 刊行하여 新刊圖書의 豫告를 하고 있다. 이 刊行物의 편집은 기계화된 漢字 資料 처리시스템(data processing system)를 사용할 것이다. 美議會圖書館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은 CIP계획은 앞으로 출판계와의 협력으로 일본에 도입될 것이다. 또한 ISSN과 ISBN번호가 널리 일본 출판사에서 사용한다면 出版物의 完全한 수집이 가능하고 書誌情報를 더 한층 신뢰할 수 있고 쉬운 전달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들 앞에는 해결하여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漢字 資料는 書誌情報의 자료처리에 있어서의 장벽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한층 정교한 기술과 복잡한 software가 요구된다. 그러나 漢字는 오히려 로마자보다도 발전적인, 특히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개개의 漢字는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는 신속하게 日本語로된 文章에서 Keyword를 찾아 낼 수가 있으며, IR System을 1/2로 압축된 file로서 관리하고, 막대한 數의 文字를 사용함으로써 2배의 情報를 보여줄 수 있는 terminal screen을 나타낼 수가 있다.

漢字를 포함한 書誌記錄의 資料處理는 실로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이다.